

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
『傷寒論翼』을 중심으로1)

張祐彰, 洪元植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A study on the medical theories of Ka-kum(柯琴)

As above we observed all medical theories contained in 『Sang Han Lon Ik(傷寒論翼)』 written by Ka-Kum(柯琴). His medical theories reflect all the Sang Han medical ideologies during his era, so his studies itself had much influences on those studying Sang Han medical ideologies. six channels system(六經) is a crucial part of 『Sang Han Zab Byung Lon(傷寒雜病論)』 written by Jang Joong-Kyung(張仲景), therefore understanding the theories of six channels system(六經) is a must for understanding the medical theories of Ka-Kum(柯琴). so in this essay, we aim to make a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es done by Ka-Kum(柯琴) and futhermore, hope to show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ies of six channels system(六經論) in Ka-Kum(柯琴)'s work.

Ka-Kum(柯琴)'s work has the following influences on the scholars studing 『Sang Han Lon(傷寒論)』

1. In Ka-Kum(柯琴)'s studies, factual observations were made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oriental medical theory: the Um-Yang(陰陽), by systemically proving that 『Sang Han Zab Byung Lon(傷寒雜病論)』 was based on the theories of 『Naegyeong(內經)』.

2. Ka-Kum(柯琴)'s studies showed that case-differentiation-model by six channels system(六經辨證體系) could be used in all clinical purposes by adopting a new ideologies of 『Sang Han Zab Byung Lon(傷寒雜病論)』 and the ideas of six parts(六經地面論).

3. Ka-Kum(柯琴)'s studies established the concept of case-differentiation(辨證) through representing the relevance of six principal syndromes(表裏寒熱虛實) which are all regulated by the case-differentiation-model by six channels system(六經辨證體系).

주제어: 柯琴, 傷寒雜病論, 六經地面說, 表裏寒熱虛實, 六經辨證

1. 緒論

張仲景『傷寒雜病論』은『黃帝內經』과 더불어 韓醫學에 있어 가장 중요한 典籍이다. 『黃帝內經』이 醫學의 諸理論이 分出하고 會集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醫學의 經典이라고 한다면, 『傷寒雜病論』은 『黃帝內經』의 理論을 臨床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臨床醫學의 經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傷寒雜病論』은 질병현상을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의 여섯으로 계통화하는 한편 각 病證의 기전을 밝히고 그에 따라 治法과 方藥을 제시, 臨床韓醫學의 독특한 방법론인 “辨證論治”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천년 이래 臨床韓醫學의 大體를 규정했다. 그러나 張仲景『傷寒雜病論』은 특유의 條文식 기술체계로 인해 체계적인 이해를 얻기에 곤란함이 있으며, 더욱이 西晉의 王叔和에 의해 고정된 傳本은 시간이 흐를수록 錯簡과 加筆에 대한 의혹을 가져왔다. 清代를 대표하는 傷寒家인 柯琴은, 『內經』의 醫理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王叔和 이래 傷寒學의 諸學說을 두루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앞서 지적한 傷寒學 연구의 二大 難題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론을 도출해낸 결과 傷寒學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의 醫學思想은 尤怡, 俞根初, 徐靈胎, 周學海, 沈金鰲 등 清代의 저명한 傷寒家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¹⁾, 근래의 『傷寒雜病論』 연구에 있어서도 그의 『傷寒論注』

는 尤怡의 『傷寒貫珠集』과 더불어 가장 精緻한 註釋書로 평가되고 있다²⁾. 『傷寒論注』는 證을 중심으로 有關條文들을 類별로 모아 연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條文식 기술체계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한편, 王叔和 傳本을 張仲景의 大意에 입각 취사선택하여 연구자료로 삼는 방법을 통해, 후대 『傷寒雜病論』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傷寒論注』에 비해 오년 뒤에 成書된 『傷寒論翼』은 柯琴 醫論의 淵源이 자세히 드러나 있는 한편 제 이론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柯琴의 醫論을 연구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柯琴이 傷寒學術史에서 지니는 이러한 독특하고 중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제한된 관심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傷寒論注』의 번역서인 『柯氏傷寒論注』³⁾가 출간된 것은, 柯琴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傷寒論注』가 매우 많은 서적들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傷寒論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 나온 바 없다. 또 『傷寒論翼』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1995년에 나온 김세현의 『柯琴의 三陽病解에 관한 研究』⁴⁾는 총 14편에 이르는 『傷寒論翼』의 전체 내용 가운데 단 삼 편에 불과한 三陽病에 대한 연구로서 柯琴 醫學理論의 전모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며, 1988년에 나온 유기덕의 『柯琴의 傷寒學說로 본 仲景의 六經體系』⁵⁾는 柯琴의 六經地面說을 이해하는데

1) 嚴世藝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472. “柯氏六經地面的創見, 也博得不少醫家贊同. 尤在涇說: “柯氏援地理兵法, 喻病邪之淺深, 方藥之大小, 可謂深切著明”. 此後, 俞根初基柯氏而提出六經形層說. 徐靈胎周學海等均各有引述與發揮. 乾隆時沈金鰲遵柯氏六經之說以治傷寒”

2)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회, 1987. p.324.

3) 윤창열·신영일·김선호 편역, 현도완역가서상한론주, 대전, 주민출판사, 1998.

4) 김세현 석사학위논문, 가금의 삼양병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5.

있어 중요한 자료이나 이 역시 “六經”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나온 연구이므로, 柯琴 醫學理論의 상세한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六經은 『傷寒雜病論』을 이해하는 핵심이므로, 柯琴의 醫學理論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그의 六經論에 대한 이해는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奎書의 大意와 條理를 강조하고 있는 柯琴 理論의 특성상 그의 六經論 역시 그의 諸 理論과의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검토될 때 비로소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論考는 證治大法論과 六經論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辨證論治體系로서 六經이 갖는 의의를 밝히는 한편, 張仲景의 醫學이 『內經』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例證하는 과정을 통해서 韓醫學 고유의 방법론인 陰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柯琴 자신의 논문집인 『傷寒論翼』을 『傷寒論注』와 대조해 가며 세밀하게 考察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의 제 醫論의 자세한 淵源과 結論을 파악하고 그의 醫論의 특징적인 면모로서 이른바 六經地面論이 갖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II. 柯琴의 生涯, 著作, 『傷寒論翼』의 成書年度

1. 生涯⁶⁾

- 5) 유기덕 석사학위논문, 가금의 상한학설로 본 중경의 육경체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 6) 柯琴 編註 曹炳章 圈點 裘沛然 總審定, 傷寒來蘇集(中國醫學大成 제7권), 上海,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0년. 柯琴에 관한 자료들

柯琴의 字는 韻伯이며 號는 似峰이다. 浙江省 慈谿 文亭(지금의 余姚縣)에서 살다가 虞山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生을 마감했다. 일찍이 立身의 뜻을 품고 儒學을 공부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함에 虞山으로 이주하여 『內經』과 『傷寒論』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였으며, 스스로 醫術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명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했다.

2. 著作 및 관련서

著作으로는 『傷寒來蘇集』과 『內經合璧』이 있다.

통상 『來蘇集』으로 약칭되고 있는 『傷寒來蘇集』은 현재 『傷寒論注』四卷과 『傷寒論翼』二卷, 『傷寒附翼』二卷의 三種 書가 合本된 형태로 傳해지고 있다. 『傷寒論注』가 “證”을 중심으로 條文을 類별로 모으고 註釋을 加하는 독창적인 형식을 통해서 傷寒注疎史에 일대 혁신을 가져 왔다면, 『傷寒論翼』은

은 柯琴 자신이 직접 쓴 自序 둘과 다른 이들이 쓴 몇 개의 序文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의 生涯에 대한 記事들은 대체로 일치하며 소략하다. 曹炳章은 자신이 발견한 세 개의 序文을 『傷寒論翼』에 붙였다. 그의 曹炳章本の 『傷寒來蘇集』의 머리에는 馬中驛의 序인 「馬序」와 衛라는 사람의 序인 「衛序」가 붙어 있으며, 『傷寒附翼』에는 葉香岩의 序文인 「批附翼序」가 붙어있다. 曹炳章本에 있는 序文과 그 연도는 아래와 같다.

傷寒論注 自序 己酉
傷寒論翼 自序 甲寅
季序 未記
孫序 己酉
葉序 丙戌
馬序 乾隆 乙亥 1755년
馮序 乾隆 甲申 1764년

『傷寒論注』에 비해 오년 후에 성서된 著書로서 14篇의 서로 유기적인 관련하에 있는 論說들을 통해 柯琴 스스로 자신의 醫學理論의 전모를 구체화하고 있다. 『傷寒附翼』은 方論書로서 方劑를 중심으로 病機와 藥理를 설명하는 형식을 통해서 각 方劑들의 적용범위를 고정하고 응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內經合璧』은 『傷寒論注』 自序에 그 존재가 언급되어 있으나, 지금은 失傳되고 없다.

그 외 清 羅美가 編輯한 『古今名醫方論』에 柯琴의 方論이 다수 記載되어 있다⁷⁾.

『傷寒晰疑』는 錢諒臣 集注로서 1816년 白鹿山房校印本이 존재한다고 하나 국내에서는 볼 수 없다⁸⁾.

『余注傷寒論翼』은 清 余聽鴻의 『傷寒論翼』 주석서로서 1893년에 간행되었다고 하나 국내에서는 볼 수 없다⁹⁾.

3. 『傷寒論翼』의 成書年度와 柯琴의 生沒年代

『傷寒論翼』의 성서연도는 柯琴 自序에 甲寅年으로 記載되어 있다. 이 甲寅年을,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¹⁰⁾이나 『中醫學術史』¹¹⁾ 그리고 丹派元胤의 『中國醫籍通

考』¹²⁾는 모두 1734년으로 추산하고 있다¹³⁾. 그러나 柯琴의 方論을 다수 記載하고 있으며, 柯琴과 직접적인 친분관계에 있던¹⁴⁾ 羅美의 『古今名醫方論』의 성서연도는 清 康熙 乙卯年으로서 서기 1675년이 확실하므로, 『傷寒論翼』의 성서연도는 『古今名醫方論』 보다는 앞선 1674년이 되어야 한다¹⁵⁾.

그의 생몰연대를 趙輝賢 校注本은 1662년에서 1735년으로, 『中國歷代醫論選講』¹⁶⁾은 1646년에서 1706년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 두 연도는 모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傷寒論翼』의 성서연도가 1674년임이 확실하다면, 각각 柯琴의 나이 12세와 28세에 『傷寒論翼』이 성서되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傷寒論翼』을 탈고했을 당시의 柯琴의 나이를 최소한 40대 이후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柯琴은 清初 즉, 順治·康熙 年間の 인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III. 『傷寒論翼』 번역의

- 12)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년.
- 13)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1.
嚴世藝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p.469.
丹派元胤 編, 中國醫籍通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432
- 14) 羅美, 上揭書, p.3. “友人柯琴, 于仲景書探討有年, 所著傷寒論翼, 多所發明. 故是編于傷寒方中, 錄其論最多, 亦欲學者因之略見仲景一斑耳”
- 15) 『中國醫學史』는 甲寅을 1674년으로 고증하고 있다.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992년 일중사 영인본)
- 16) 陳大舜 등 編: 中國歷代醫論選講,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7.

- 7) 『古今名醫方論』은 1994년 中國中醫藥出版社本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
- 8)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년.
- 9) 東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양의학대사전 v7, p.11.
- 10) 趙輝賢 校注, 上海, 上海과학기술출판사, 1986. 趙輝賢의 「前言」에 의하면 초고작성 연도는 1982년이며, 논자가 보고있는 판본은 1992년 일중사 영인본이다.
- 11) 嚴世藝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底本과 일러두기

1. 번역의 底本

현재 국내에서 볼 수 있는 『傷寒來蘇集』의 板本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趙輝賢 校注本이며, 다른 하나는 『中國醫學大成』의 제7권¹⁷⁾으로서 曹炳章 圈點本이다. 앞으로 본 論考에서는 국내의 通行本임을 감안해서 전자는 “통본”으로 후자는 曹炳章의 校本임을 감안해서 “조본”으로 구분해 약칭하기로 하겠다. 통본은 조본을 底本으로 성립된 板本이나 다른 板本으로 校訂된 것이므로 상당부분 曹本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論考의 『傷寒論翼』 번역은 통본을 底本으로 삼되 필요에 따라 조본과 대조하고 나아가 『傷寒論注』의 유관 내용과 검토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방법을 통해 통본의 難解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2. 일러두기

一. 본 번역은 『傷寒論翼』 고유의 上下卷 14篇의 編制를 따라 진행하였다. 각 篇을 내용에 따라 장과 절로 분류하고 각 장과 절에는 표제를 붙였다. 예컨대 上卷의 【1-1-1】은 上卷의 1편 1장 1절이다.

一. 원문은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中の 『傷寒論翼』을 기준으로 하였다.

一. 번역은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는데 치중했다. 따라서 생소하더라도 가급적 柯琴의 용

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했다.

一. 『傷寒論注』와 『傷寒附翼』의 인용 역시 위의 책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인용은 원문을 併記하지 않고 번역만을 실었다.

一. 張仲景 條文의 일련번호는 『현토완역 가씨상한론주』의 그것을 사용했다.

一. 『傷寒論翼』에서 柯琴이 인용하고 있는 『傷寒雜病論』의 모든 條文은 『傷寒論注』에서 그 條文을 찾아서 각주에 기재했으며, 『傷寒論注』의 編制에 따라 찾아보기를 붙였다. 예를 들어서 14條는 『傷寒論注·太陽·桂枝證上』으로 되어 있다.

一. 『傷寒論注』에 인용되어 있지 않은 條文은 『仲景全書』(大北, 集文書園, 中華民國 72년)의 것을 사용했다.

一. 『傷寒論注』의 條文은 『仲景全書』의 그것과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가운데에는 柯琴이 필요에 따라 고친 것이 많다. 柯琴 스스로 校勘한 내용이 『傷寒論注』에 보이는 것은 모두 실었으며, 『傷寒論注』 條文의 宋本과의 校勘은 李培生의 『柯氏傷寒論注疏正』(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년)을 참고했다.

一. 柯琴이 인용하고 있는 『內經』의 文句는 가능한 한 모두 찾아서 기재하고 柯琴 인용문과 『內經』 원문과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一. 내용과 관련되는 각주는 모두 번역문에 달았으며 趙輝賢 校注本の 校勘과 관련된 각주는 원문에 달았다.

IV. 譯註傷寒論翼翼自序

17) 曹炳章 卷點 裘沛然 審定本이 바로 이것이다.

傷寒論翼 自序

譯註傷寒論翼 卷上

1. 六經證治의 大法을 온전하게 論說함(全論大法)

【1-1】 傷寒雜病合論

【1-1-1】 六經分證皆兼傷寒雜病論

【1-1-2】 太陽篇中風傷寒合論之意

【1-1-3】 仲景約法能合百病兼該于六經論

【1-2】 大法論

【1-2-1】 仲景因證立方論

【1-2-2】 仲景治法悉本『內經』論

【1-2-3】 仲景治法汗吐下利水清火調補等法
悉具論

【1-3】 脈法補遺論

【1-4】 逐條察其筆法論

2. 六經의 올바른 뜻(六經正義)

【2-1】 仲景之六經是分六區地面所該者廣論

【2-2】 仲景六經『內經』起源論

【2-3】 六經地理論

【2-3-1】 六經地面論

【2-3-2】 太陽地面少陰與陽明相關論

【2-3-3】 心胸地面論

【2-3-4】 人身之病動關心腹論

【2-3-5】 六經道路論

【2-4】 六經用兵論

【2-4-1】 六經地形與地理之意解

【2-4-2】 太陽用兵論

【2-4-3】 少陽用兵論

【2-4-4】 陽明用兵論

【2-4-5】 太陰用兵論

【2-4-6】 厥陰用兵論

【2-4-7】 少陰用兵論

3. 合病과 并病의 숨은 뜻을 밝힘(合併啓微)

4. 風과 寒에 관한 迷惑을 변론함(風寒辨惑)

【4-1】 中風傷寒風寒論

【4-1-1】 中風傷寒相類論

【4-1-2】 中風傷寒各有輕重論

【4-2】 六經風寒發病論

【4-2-1】 太少陰陽發熱論

【4-2-2】 六經受邪發病各路論: 中陽溜經中
陰溜府之義

【4-3】 六經邪氣轉屬論

【4-3-1】 現證期日論

【4-3-2】 仲景傳字解

【4-3-3】 六經轉屬概要

【4-4】 辨三綱鼎立論

【4-4-1】 中風傷寒脈症辨

【4-4-2】 太陽三方皆中風治方論

【4-4-3】 太陽病多中風論

【4-5】 辨寒溫疫論

【4-6】 治傷寒溫散溫補正法論

5. 溫暑의 뜻(溫暑指歸)

【5-1】 『內經』論傷寒而反發熱證之三義

【5-2】 溫病生病之源論

【5-2-1】 鬱火論

【5-2-2】 辨王叔和寒毒說

【5-3】 仲景溫病證治

【5-4】 溫熱與溫疫之異論

6. 瘧과 濕의 相似와 相異(瘧濕異同)

【6-1】 六氣異同論

【6-2】 瘧之爲病屬燥論

【6-3】 六經瘧症論

【6-4】 風瘧因熱濕瘧因燥論

- 【6-5】瘧病證治
【6-6】痺與瘧皆由濕變論
7. 平脈斗準繩(平脈準繩)
- 【7-1】診法貴要論
【7-2】脈法體用論：陰陽十脈論
【7-3】診脈五法論：對看法·正看法·反看法
·側看法·徹底看法
【7-4】真陰真陽看法論
【7-5】表裏藏府四法：浮沈遲數之義
【7-6】診法體用論：浮脈을 實例로
- VI. 譯註傷寒論翼 卷下
1. 太陽病解
- 【1-1】審病四法
【1-1-1】緊記提綱法
【1-1-2】看出底板法
【1-1-3】細玩四旁法
【1-1-4】從中索隱法：太陽脈法
【1-2】太陽正義
【1-2-1】太陽膀胱辨
【1-2-2】傷寒最多心病論
【1-2-3】辨傷足不傷手說：陰陽內外相輸之義
【1-2-4】風寒營衛辨：麻桂二方之義
【1-3】太陽病 治法
【1-4】太陽變證
【1-4-1】太陽少陰合病
【1-4-2】陽去入陰證
2. 陽明病解
- 【2-1】陽明總綱解
【2-1-1】陽明總綱底板
【2-1-2】胃家實解
【2-2】陽明表證解
【2-2-1】定陽明表證提綱
【2-2-2】陽明表證與太陽表證辨
【2-2-3】陽明表證內外辨：風寒表證與內熱表證
【2-2-4】陽明與太陽表證脈證辨
【2-3】陽明表證治法
【2-3-1】陽明表證治法舊誤辨
【2-3-2】陽明內熱表證治則
【2-3-3】大法當吐：梔子豉湯條解
【2-3-4】陽明表證汗後救逆治法
【2-3-5】陽明表證擬似桂枝證解：瓜蒂散條解7
【2-4】陽明治法의 權法
【2-5】陽明之關繫三陰重說
3. 少陽病解
- 【3-1】少陽提綱
【3-1-1】少陽提綱解
【3-1-2】少陽表證解
【3-1-3】少陽半表半裏證 三義
【3-2】少陽半表半裏證治：小柴胡湯解
【3-2-1】小柴胡湯證治
【3-2-2】小柴胡湯證解
【3-2-3】小柴胡湯中用人參之義
【3-3】少陽少陰擬似證
【3-4】轉屬論
【3-4-1】脇爲少陽之樞論
【3-4-2】辨少陽四禁論
【3-4-3】少陽陽明別在嘔渴論
【3-4-4】少陽妄下後變證
【3-5】少柴胡爲樞機之劑論

4. 太陰病解
- 【4-1】太陰提綱解
 - 【4-2】太陰標本辨
 - 【4-3】太陰轉屬陽明論
 - 【4-4】太陰脈辨
 - 【4-4-1】太陰標本脈辨
 - 【4-4-2】太陰中風欲愈脈解
 - 【4-5】太陰中風論
 - 【4-5-1】太陰中風四肢溫熱之義
 - 【4-5-2】太陰中風陰虛陽溼論
 - 【4-6】太陰傷寒論
 - 【4-6-1】太陰傷寒手足自溫之義
 - 【4-6-2】太陰傷寒以陽明爲主論
 - 【4-7】嘔吐辨: 吐屬太陰論
 - 【4-8】太陽陽邪下陷太陰證論
5. 少陰病解
- 【5-1】少陰提綱解
 - 【5-2】陰中有陽沈亦可汗·陽中有陰浮亦當溫論
 - 【5-3】少陰病轉屬論
 - 【5-3-1】先天之元陽賴後天之胃氣培植論
 - 【5-3-2】少陰傳陽證論
 - 【5-3-3】少陰來復陽氣論
 - 【5-4】少陰太陽相似脈證治
 - 【5-5】脈陰陽俱緊口中氣出條解
 - 【5-6】欲寐與不眠辨
 - 【5-7】少陰急下三證論
 - 【5-8】少陰證治大法論
6. 厥陰病解
- 【6-1】厥陰提綱解
 - 【6-1-1】厥陰主相火論
 - 【6-1-2】厥陰提綱是溫病論
 - 【6-2】厥陰傷寒論
 - 【6-2-1】當歸四逆是厥陰傷寒之表藥論
 - 【6-2-2】厥陰傷寒厥熱論
 - 【6-2-3】厥陰傷寒用下法論
 - 【6-2-4】治厥陰傷寒以滋陰爲主論
 - 【6-2-5】厥陰肝火變症論
 - 【6-3】厥陰傷寒乘脾乘肺脈證治論
 - 【6-4】厥陰中風脈證治論
 - 【6-5】陰陽易解
7. 方劑를 구성하는 大法(制方大法)
- 【7-1】仲景制方惟求症之切當論
 - 【7-2】仲景立方只有表裏寒熱虛實之不同論
 - 【7-3】六經制方論
 - 【7-3-1】麻黃桂枝二湯是發汗分深淺之法論
 - 【7-3-2】桂枝湯調和營衛柴胡湯調和膜理論
 - 【7-3-3】大青龍湯兼發表清裏論
 - 【7-3-4】小青龍湯重在半裏之水氣論
 - 【7-3-5】瀉心湯
 - 【7-3-6】吐劑論: 瓜蒂散與梔子豉湯
 - 【7-3-7】小柴胡雖治在半表實以理三焦之氣論
 - 【7-3-8】少陰制方論: 黃連阿膠湯·桃花湯·真武湯·豬苓湯
 - 【7-3-9】太陰制方論: 四逆湯·真武湯·桃花湯
 - 【7-3-10】厥陰制方論: 烏梅與小柴胡寒溫互用攻補兼施之法相合論
 - 【7-4】方有淺深輕重之別論
 - 【7-4-1】發表攻裏辨: 發表不遠熱攻裏不遠寒論
 - 【7-4-2】六經表藥表裏辨
 - 【7-4-3】四逆輩有淺深之別論
 - 【7-4-4】六經下劑辨論

- 【7-4-5】仲景攻下之意解
- 【7-4-6】下劑當用湯論
- 【7-5】仲景服藥禁忌論
- 【7-6】仲景加減有深意論
- 【7-7】仲景有七方論
- 【7-8】刺藥相須論
- 【7-9】仲景方備十劑之法論

v. 總括 및 考察

이상 『傷寒論翼』 上下卷 14篇의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傷寒論翼』 全書는 전체가 六經論이라고 할 수 있다.

- 「自序」와 「全論大法」은 當代 연구방법론의 폐단을 지적하고 새로운 『傷寒雜病論』 연구방법론을 立論하는 한편 六經辨證의 실질적 강령인 陰陽表裏寒熱虛實의 證治大法을 立論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경연구의 방법론을 제출하고 있다.

- 「六經正義」는 柯琴의 독특한 六經論으로서 經絡說의 한계를 극복하는 六經地面論과 六經道路論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 下卷의 「太陽病解」에서 「厥陰病解」에 이르는 「六經病解」는 上卷에서 立論한 바 六經地面論과 證治大法論 및 제 이론을 토대로 張仲景 『傷寒雜病論』의 條文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當代의 諸 傷寒이론을 辯論하는 한편 理法方藥을 아우르는 證治의 準繩으로서 六經이 갖는 意義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 「平脈準繩」과 「制方大法」은 六經論의 大意에 입각한 平脈論과 制方論을 각각 논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診斷論과 用藥論이라는 측면에서 六經論을 補論하고 있다.

면에서 六經論을 補論하고 있다.

- 「風寒辨惑」과 「溫暑指歸」 그리고 「瘧濕異同」의 三篇은 風寒暑濕燥火의 六氣에 의한 發病을 논술하고 있는 篇으로서, 六經論을 病因論이라는 측면에서 補論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지에 입각하여, 본 論考는 六經연구방법론, 六經證治大法論, 六經提綱論, 六經邪氣轉屬論, 六經地面論, 六經道路論, 六經治法論, 六氣論을 連論하고, 나아가 六經病論에서 「六經病解」에 보이는 특징적인 이론들을 약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柯琴 六經論의 실체를 考察하는 한편, 아울러 平脈辨證論과 制方大法論을 考察하여 『傷寒論翼』을 통해 드러나는 柯琴의 醫學理論을 總括하였다.

1. 六經연구방법론

柯琴의 六經연구방법론은 柯琴 當代의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출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當代 張仲景 『傷寒雜病論』 연구의 底本인 王叔和의 『傷寒論』 傳本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傷寒論翼·自序』가 지적하는 王叔和 編次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傷寒雜病論』이던 것을, 本論에서 雜病을 刪去했다.
2. 「傷寒例」를 本論의 머리에 씌웠다.
3. 「辨脈法」과 「平脈法」을 本論의 머리에 붙이고, 「可汗」「不可汗」등의 제편을 본론의 뒤에 붙였다.
4. 本論 「太陽病篇」의 머리에 「瘧濕喝」을 추려다 놓고, 「霍亂」「勞復」등을 본론 「厥陰病篇」에서 빼다가 별도로 「厥陰病篇」의 뒤에 달아 놓았다.

5. 本論 「六經病篇」 內에 加筆을 했다.

柯琴에 의하면 이상의 오류에 의한 폐단은 다음과 같다.

-1에 의해 其間의 『傷寒雜病論』 연구는 출발에 있어서부터 오류를 안고 있다. 다시말해서, 六經의 提綱은 본디 傷寒만을 위한 立論이 아니며, 傷寒의 와중에는 雜病이 挾雜되는 경우가 빈번해서 傷寒과 雜病을 合參해야만이 비로소 證治가 井然해질 수 있는 것인데, 『傷寒雜病論』을 『傷寒論』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는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도 반영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王叔和 자신의 立論인 「傷寒例」에 의해 『傷寒雜病論』의 해석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證治大法이란, 『內經』에서 나온 것으로서, 表裏寒熱虛實이 있을 뿐인데, 「傷寒例」에 의해 時令에 따라 證治의 大法을 設定하는 弊習이 유행하고 있다.

-『傷寒雜病論』은 太陽에서 厥陰에 이르는 六經의 節制에 따라 제 질병을 辨證論治하고 있는데, 2와 3에서 보이는 것처럼 王叔和의 分論에 의해서 分門類證의 弊習이 유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下에, 柯琴이 「全論大法」을 통해서 제출하고 있는 그의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1. 張仲景 『傷寒雜病論』은 제 질병의 證治를 목적으로 기획된 저술이다.

2. 張仲景의 六經分證은 제 질병을 포괄하며, 六經은 제 질병의 辨證論治를 위한 節制이다.

3. 張仲景의 證治大法은 汗吐下의 三法 뿐만 아니라 利水, 淸火, 調補의 諸法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이는 모두 『內經』에서 유래한

것이다.

4. 王叔和의 『傷寒論』 傳本은 張仲景의 原集에 첨삭이 가해진 것이다. 張仲景의 原旨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傷寒雜病論』 연구의 자료로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설사 本論에 들어가 있더라도 연구의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2. 六經證治大法論

柯琴 六經論은 王叔和의 經絡說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立案된 것으로서, 六經分證이 外感과 雜病의 合論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六經證治가 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證治의 大法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될 때, 張仲景 六經의 眞面目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王叔和가 「傷寒例」에서 『素問·熱論』을 引用하여 六經을 해석하기 시작한 이래로 六經은 「熱論」의 經絡說에 입각해 해석되고 있으나, 柯琴에 의하면, 「熱論」의 六經이 전적으로 經脈病證 가운데 表裏의 實熱證이라는 제한된 病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인데 비해서, 張仲景의 六經의 “經”은 단순히 經絡의 의미가 아니라 人體를 여섯 區域의 地面으로 나눈 포괄적인 범주를 갖는다. 그러므로 六經은, 表에서 裏에 이르기까지, 寒에서 熱에 이르기까지, 虛에서 實에 이르기까지, 經絡病證 뿐만 아니라 風寒溫熱과 內傷·外感의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의 각 局面을 대표하고 있는 六經提綱의 의미를 經絡病證에 한정해서도 風寒의 病證에 劃定해서도 안된다.

「全論大法」에 의하면 六經證治의 大法은

表裏寒熱虛實의 六綱이다. 그 外에 陰陽이 더 있지만, 柯琴에 의하면, 陰陽은 기실 寒熱에 다름 아니므로 大法은 表裏寒熱虛實의 여섯 綱領으로 귀납된다. 柯琴이 『素問·至眞要大論』과 張仲景 條文의 連繫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辨證에 있어 陰陽 즉 寒熱이 첫째이며, 表裏의 寒熱이 둘째이며, 表裏의 寒熱 가운데 虛實을 추구하는 것이 셋째이다. 表裏寒熱虛實의 大法에 따라서 治法이 정해지고 나면, 病의 深淺에 따라서 施治의 次第와 方劑의 輕重이 定해진다.

柯琴이 말하는 表裏寒熱虛實의 證治大法은 辨證體系로서 六經이 지향하는 綱領의 구실을 한다. 다시말해서 六經辨證을 한다는 것은 바로 證의 表裏寒熱虛實의 病機와 病情을 파악해 내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3. 六經提綱論

六經提綱論과 六經邪氣轉屬論은, 『內經』의 陰陽論에 기초하여 張仲景의 條文들을 세밀하게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柯琴이 자신의 六經論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柯琴에 의하면, 六經提綱의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定體期 즉 六經의 地面을 파악할 수 있다면, 合病과 并病의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變遷期 즉 六經의 邪氣轉屬을 파악할 수 있다.

柯琴에 의하면, 「傷寒例」의 六經提綱이 經絡病證 가운데 熱實證만의 提綱인데 비해서, 張仲景의 六經提綱은 傷寒雜病合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張仲景의 原著는 傷寒¹⁸⁾과 雜病의 合論書이므로, 條文 가운데

18) “傷寒”이라는 용어는, 中風이나 溫病 등의 外感을 總稱하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用法과,

文頭에 “傷寒”이라고 지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外感和 雜病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柯琴이 제시하고 있는 六經提綱은 太陽病의 頭項強痛, 陽明病의 胃家實, 少陽病의 口苦·咽乾·目眩, 太陰病의 腹滿吐利, 少陰病의 欲寐, 厥陰病의 氣上撞心이다.

柯琴의 六經提綱에 대한 이해는, 陰陽의 分位와 離合에 관한 이론과 陰陽의 表裏관계, 그리고 六氣의 主氣관계 등 『內經』의 陰陽論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柯琴은 이 六經提綱에 대한 분석과 六經의 合病并病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六經地面과 六經道路의 이론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六經提綱論은 柯琴의 六經論 전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¹⁹⁾.

4. 六經邪氣轉屬²⁰⁾論

柯琴에 의하면 「熱論」의 期日은 傳經의 期日이 아니라 現證의 期日이며, 이러한 現證期日 상의 차이는 六經의 分部에 位相의 高低가 있으므로 因해 邪氣를 感受하는 期日에 있어서도 順次상의 遠近이 생겨나는 현상이다. 또 本

中風이나 溫病 등과 구별되는 국한적인 의미로서의 用法이 있다. 즉 雜病에 대비하여 傷寒을 말할 때는 外感을 총칭하는 用法이며 中風에 대비하여 傷寒을 말할 때는 外感 가운데 寒邪의 病證만을 지칭하는 用法이다. 여기서는 外感의 총칭으로 쓰이고 있다.

19) 柯琴이 六經提綱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六經病解」의 六經提綱解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조.

20) 柯琴에 의하면, 邪氣의 轉變을 설명하는 張仲景의 용어는 轉屬·轉繫·轉入 등이 있지만 이 論考에서는 이를 대표하는 용어로 轉屬을 쓰고자 한다.

論의 “傳”字의 用例는, 1. 熱邪나 寒邪가 本經으로 傳達됨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 太陽과 陽明 間의 經絡의 連繫에 의한 邪氣의 직접적인 傳達이 인정되고 있는 用例 역시 經脈의 循行에 있어서 太陽과 陽明이 鼻頰에서 交會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예외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邪氣가 太陽에서 厥陰에 이르는 일련의 순차로 매 하루씩 傳經한다는 次第傳經理論의 주장은 오류이다. 外感의 發病에 있어서도 각 經은 직접 邪氣를 外感하는 방식으로 發病할 수 있으며, 질병의 變遷에 있어서도 「熱論」의 규율 보다는 훨씬 복잡한 규율에 따라 다양한 變태를 갖을 수 있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變化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傷寒雜病論』의 條文들로 돌아가 轉屬·轉繫와 并病·合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考察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合病이나 并病이 나타나는 이유는 陰陽이 互根하기 때문으로서, 合病并病에 대한 연구는 六經提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六經辨證體系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축을 이룬다. 즉 陰陽의 體가 되는 六經提綱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六經辨證體系의 定法을 알 수 있다면, 이 定法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離散했다 合一하는 陰陽의 用이 되는 合病并病현상의 특질을 관찰함을 통해서 六經辨證體系의 不定法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合病并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柯琴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있다. 하나는, 張仲景이 條文을 통해 合病이라고 命名하고 있는 病症에서 한걸음 나아가, 表裏관계에 있는 太陽과 少陰, 陽明과 太陰, 少陽과 厥陰의 合病에 대한 숨은 의미를 啓發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三陰病에도 并病이나 合病

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例證하고 있다는 것이다²¹⁾. 한편, 合病并病은, 病證의 陰陽을 잘 살펴서 陰證과 陽證이 合并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病證의 三陽과 三陰을 잘 살펴서 病證이 并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陰病治陽·陽病治陰·扶陽抑陰·瀉陽補陰 등의 治法들 가운데 적절한 治法을 골라 써야 한다는 점에서 治法을 설정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5. 六經地面論

「六經正義」는 人身을 周代 分封制度에 譬喩하고 있다. 心腹(國都)을 中心으로 國境을 향해 上下內外前後를 축으로 表에서 裏로 가는 層次構造로 配列되어 있는 列國의 分布는, 邪氣(外敵)로부터 人身(國土·人民)을 護衛하는 防禦시스템(六經地面)이다. 한편, 柯琴에 의하면, 六經의 地理는, 病證의 고유한 發現處로서의 “地面”과 邪氣의 移動路로서의 “道路”의 두 범주를 포괄한다. 따라서 六經地面論은 실상 六經地面論과 六經道路論을 아우르는 六經地理論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六經分位

(1) 分部理論

『素問·皮部論』의 “黃帝問曰: 余聞皮有分部, 脈有經紀, 筋有結絡, 骨有度量, 其所生病各異, 別其分部, 左右上下, 陰陽所在, 病之始終, 願聞其道”의 句를 통해서 柯琴은,

-人身을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 여섯의 分部로 分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21) 구체적인 내용은 「合併啓微」를 참조.

함과 아울러,

-分節적인 區域에 따라서 病證이 發現하는 특징적인 양상이 존재하므로, 邪氣가 자리잡는 病所로서 左右上下의 分部를 定位하는 일이 질병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관건임을 설명하고 있다.

六經分位の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 立論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六經分位の 지향이 질병현상의 계통적인 파악과 그에 따른 치료에 있음을 밝힘을 통해서, 六經辨證體系가 人身全般의 질병을 포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六經의 分節된 領域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질병현상이 人身에서 發現하는 左右上下의 分部를 계통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천명함으로써, 六經의 人身 分布가 左右上下로 상징되는 일련의 表裏層次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陰陽分位

柯琴에 의하면, 六經分位에 앞서는, 陰陽分位는 「皮部論」의 “陽主外陰主內”의 句에 근거하여, 三陽經은 모두 外證을 주관하고 三陰經은 모두 內證을 주관하는 형식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陰陽은 互根하며, 陰陽內外分位에 三陰三陽分位가 간섭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六經의 分位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예컨대, 陽病에서도 裏症이 나타나며 陰病에서도 表症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柯琴은 「皮部論」의 “在陽者主內, 在陰者主出, 以滲于內”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三陽 가운데에서도 內를 主하는 것이 있으며, 三陰 가운데에서도 직접 外를 主할 수는 없더라도, 出을 主하는 형식으로 外와 연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柯琴에 의하면, 三陽 가운데 內를 主

하는 것은 곧 陽明이며, 發病 즉시 “反發熱” 즉, 表症이 나타나 陽病과의 감별을 요하는 陰病은 少陰病이다. 柯琴은 少陰病의 이 특수한 정황을 「皮部論」의 두 경로 즉, “從陽部注於經”과 “從陰部內注於骨”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發熱·脈沈의 病證으로서 裏證이 없는 病證 즉, 麻黃附子細辛湯證은, 少陰에 들어온 陽邪가 少陰本經으로 들어가는 病機에 해당하며, 身體骨節痛·手足寒·背惡寒·脈沈의 病證 즉, 附子湯證은, 少陰에 들어온 陰邪가 少陰의 藏으로 들지 못하고 骨로 들어가는 病機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陽明과 少陰의 이러한 특수한 정황은 陰陽의 表裏관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즉 柯琴에 의하며, 서로 表裏관계에 있는 陽明과 太陰·少陰과 太陽·厥陰과 少陽은 셋의 쌍을 형성하며, 人身 氣機의 昇降出入을 調節한다. 少陰太陽의 쌍은 氣機의 上下昇降을 調節하며, 厥陰少陽의 쌍은 氣機의 內外出入을 調節하는데, 전체 氣機를 統制하는 것은 太陰陽明쌍이다²²⁾. 따라서 少陰은 太陽과의 관련 下에 表症을 가질 수 있다. 또 陽明의 경우 三陽 가운데 闔이며, 太陰과 더불어 “中州”에 위치하므로 裏證 가운데 陽證을 주관하는 특징이 있다.

(3) 六經分位

陰陽은 內外로 分位하는 동시에 三陰三陽으로 離合한다. 內외의 分位는 陰陽의 互根을 기반으로 하며, 三陰三陽의 分化는 각각 開闔樞의 기능상 특성을 보이는 동시에, 서로 表裏로

22) 柯琴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太陰과 陽明은 공히 천하의 한 복판에 위치하면서도 말아 하는 일이 다른 것은, 마치 周公과 昭公이 政事를 나누어 담당하는 이치와 같으며, 그 외 厥陰·少陽과 太陽·少陰의 地面은 內外로 出入하고 上下로 牽引된다” 「六經正義」 참조.

關繫되고, 각각 主氣를 갖는다. 柯琴의 六經地面은,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따른 기능적 分化를 축으로 三陰三陽의 陰陽表裏관계, 三陰三陽의 主氣등의 陰陽의 제 속성이 人身의 內外上下表裏라는 공간적 偏差에 應하는 방식으로 人身을 여섯의 공간으로 分節함으로써 획득된다.

2) 六經分面

(1) 六經分面の 기준

「六經正義」가 제시하고 있는 六經分面の 기준은 上下와 內外이다. 이는 정확히 「皮部論」의 「內外上下」에 응하는 分屬이다. 柯琴에 의하면, 邪氣가 變遷하는 관건은 心和 腹에 있는 것으로서, 陽邪는 心으로 물러가고 陰邪는 腹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心和 腹은 三陽과 三陰의 「夾界之地」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허리를 기준으로 人體의 上部는 三陽의 地面이다. 三陽은 人身의 外를 주관하며 裏에 뿌리를 박고 있다.

-허리를 기준으로 人體의 下部는 三陰의 地面이다. 三陰은 裏를 주관하고 地面이 外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心은 三陽이 境界를 맞대고 있는 地面이며, 腹은 三陰이 서로 境界를 맞대고 있는 地面이다.

(2) 六經各地面

六經分面은 內外와 上下를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三陽은 外를 主하며 陰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上下와 內外로 동시에 分面되고 있으나, 三陰은 內를 主하며 地面이 外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內에서만 分面되고 있다. 「六經正義」가 제시하고 있는 六經各地面의 분포와 地面 間의 연결, 그리고 각 地面의 역할

은 다음과 같다.

① 太陽地面

-분포

內外: 속으로는 心胸으로부터 밖으로는 머리꼭대기(巔頂)에 이르기까지

上下: 아래로는 다리 끝까지 속으로는 膀胱에 이르기까지

前後: 앞으로는 이마(額顛)에서 뒤로는 肩背에 이르기까지

-연접

太陽의 地面은 가장 방대해서 안으로 少陰과 인접해 있으며 밖으로는 陽明과 인접하고 있다.

-역할

太陽은 營衛를 統率하며 온몸의 表證을 주관해서, 국경에 붙어 있어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나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② 陽明地面

-분포

內外: 속으로는 心胸 및 胃와 腸으로부터 밖으로 머리와 이마(頭顛)에 이르기까지

上下: 얼굴에서부터 배를 거쳐 발에 이르기까지

-연접

陽明은 內地로서 陽明의 上部 經界는 太陽과 少陽의 地面이다.

-역할

陽明은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心和 腹이 모두 그 地面에 속한다.

③ 少陽地面

-분포

上下: 心으로부터 목구멍을 거쳐 髭(口頰)으로 나와 위로 귀와 눈(耳目)을 지나 비탈진 경로로 머리꼭대기(巔)에 이르기까지

內外: 밖으로는 脇으로부터 안으로 臍에 이르기까지

-역할

少陽은 太陽 보다는 陽明에 가까이 위치하여 수도 둘레에서 자리하여 수도를 방어해주는 나라, 즉 京畿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④ 太陰地面

-분포

腹으로부터 脾를 지나 大腸·小腸과 魄門에 이르기까지는 太陰의 地面이다.

-연접

陽明과 마찬가지로 太陰 또한 內地로서, 少陰·厥陰과 經界를 끼고 있는 한편 太陰은 中州에 위치하므로 外로 三陽과 通하고 있기도 하다.

⑤ 少陰地面

-분포

腹으로부터 左右 腎과 膀胱 그리고 尿道에 이르기까지는 少陰의 地面이다.

⑥ 厥陰地面

-분포

腹으로부터 肝을 지나 橫膈위로 올라와 心에 이르며 脇肋을 좇아 아래로 小腹과 宗筋에 이르기까지

-연접

厥陰의 地面은 三焦에 두루 通해 있다.

-역할

三焦를 通行시키며 온몸의 裏證을 주관하는 것이, 수도 가까이 위치하여 수도 방위를 도와주는 나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3) 六經의 地面 분포에 따른 邪氣轉屬概要

六經의 地面은 칼로 자르듯이 선명한 경계

를 갖는 것은 아니어서, 서로 地面을 공유하고 연접하는 “挾界之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挾界에 의해 邪氣가 인접지면으로 전속될 수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太陽

太陽의 지면은 陽明이나 少陽의 地面과 가깝기 때문에, 太陽의 邪氣는 陽明이나 少陽으로 轉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他 五經 어디로도 전속될 수 있다.

-太陽의 陽邪가 盛해서 제거되지 않으면, 邪氣가 곧바로 陽明으로 轉屬하며,

-太陽의 陽氣가 이미 衰했는데도 邪氣가 제거되지 않으면, 邪氣는 少陽으로 轉屬하며,

-陽氣가 陷下되면, 邪氣는 곧바로 太陰으로 轉屬되며,

-陽氣가 虛하면, 少陰으로 轉入되며,

-陽氣가 逆하면 邪氣는 厥陰으로 轉屬된다.

(2) 陽明

陽明은 萬物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六經 가운데 어디에 있는 邪氣라도 모두 陽明으로 傳屬될 수 있다. 역으로 陽明에 있는 邪氣는 다시 傳移할 곳이 없는데, 이는 本論에 太陽陽明證이 少陽으로 轉屬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太陰陽明

陽明과 太陰은 모두 胃에 속하므로,

-胃氣가 實하면 太陰의 邪氣는 陽明으로 轉屬되며,

-胃氣가 虛하면 陽明의 邪氣가 太陰으로 轉屬된다.

(4) 少陰

少陰은 地面의 太陰이나 厥陰의 그것과 가까우므로,

-少陰이 太陰으로부터 寒邪를 받으면 吐利

清穀이 나타나며,

-厥陰으로부터 熱邪를 받으면 咽痛便血이 나타난다.

(5) 厥陰

厥陰은 陰이 끝나는 곳이므로 陽明에서처럼 邪氣가 다른 經으로 傳移하지 않는다.

-陰에 빠져 있던 陽氣가 솟아나오면 熱多厥少가 나타나며,

-陰邪가 極烈해서 陽氣가 도망가 버리면 역으로 熱少厥多가 나타난다.

6. 六經道路論

六經提綱이 邪氣가 인체의 특정 分部에 머물러 질병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형식을 의미한다면, 질병의 변화 즉, 邪氣의 轉屬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六經 각각은 邪氣가 지나가는 “道路”의 의미를 갖는다. 柯琴은 邪氣의 道路로서 六經이 갖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邪氣의 來路는 邊境의 關門으로서 三陽이 이에 해당한다. 客邪는 外適이 邊境의 關門에 이른 것으로서, 주로 三陽을 따라 들어온다.

-太陽: 太陽은 表를 主하며, 表는 客邪가 人身으로 들어오는 門戶이다. 따라서 太陽은 대규모의 적군이 몰려오는 大路이다.

-少陽: 少陽은 半表半裏에 위치하므로, 少陽에 있는 邪氣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流賊과도 같이 病이 內地의 바로 곁에서 일어나 內地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少陽은 僻路이다.

-陽明: 陽明은 內地로서 陽明에 있는 邪氣는 곧바로 中宮을 위협한다. 따라서 陽明은 直路이다.

또, 邪氣의 去路는 國內 영토로서 三陰이 이에 해당한다. 正邪는 주로 三陰을 좇아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國內에서 도적이 발생한 것이다.

-太陰: 太陰은 陽明과 마찬가지로 內地로서, 太陰에 있는 邪氣는 陽明을 出路로 한다. 따라서 太陰은 속에서 일어난 邪氣가 中宮으로 달려가는 近路이다.

-少陰: 少陰은 太陽과 表裏를 이루며, 따라서 少陰에 있는 邪氣는 太陽의 大路를 통하지 않고 後路에서 일어난 것이다.

-厥陰: 厥陰은 少陽과 表裏를 이루며, 三焦相火의 流行을 주관하여 三焦와 두루 通한다. 그러므로 厥陰에 있는 邪氣는 少陽에 있는 邪氣와 마찬가지로 大路에서 벗어나 斜路에 있는 邪氣이다.

7. 六經治法論

六經地面論과 六經道路論을 통해서 邪氣(外賊)로부터 人身(國土·人民)을 護衛하는 방어 시스템으로서 육경의 의의를 설명한 바 있는 柯琴은, 六經의 治法을 邪氣의 所在에 따른 用兵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柯琴에 의하면, 六經의 治法은 邪氣의 輕重에 따라 달라진다. 三陽의 경우에는 表裏의 深淺과 邪氣의 輕重이 일치하는데 비해서, 三陰의 경우에는 邪氣의 陰陽속성과 表裏轉屬경로에 따라 輕重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三陽病과 三陰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陽病은 아직 正氣의 손상을 입지 않은 病證이므로 祛邪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므로 邪氣의 表裏所在가 관건이지만, 陰病은 이미 正氣의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邪氣의 表裏所在보다도 질병의 寒熱虛實

이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治法은 정확히 表裏寒熱虛實의 證治大法과 일치한다²³⁾.

8. 六氣論

1) 風寒論

(1) 風寒相因論

柯琴은 發病의 因素로서 風과 寒을 陽邪와 陰邪로 구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發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風과 寒이 相因하는 방식으로 發病한다는 風寒相因論을 제출하고 있다. 이 風寒相因論은 三綱鼎立說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三綱鼎立說은 王叔和로부터提起되어, 唐代의 孫思邈, 宋代의 成無己와 許叔微, 明代의 方有執을 거쳐, 明末清初의 喻昌을 통해 완성된 이론으로서, 三綱鼎立說에 의하면 風傷衛에는 桂枝湯을, 寒傷營에는 麻黃湯을, 風寒이 營衛를 俱傷한 病證에는 大靑龍湯을 쓰는 것이 傷寒治法의 三大綱이다. 그러나 柯琴에 의하면 風寒의 外感은 風과 寒이 동시에 相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發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病證이 發現하는 양상을 통해서 風과 寒 각각의 輕重을 보아서 方의 輕重을 달리 할 뿐이다.

(2) 中風傷寒各有輕重論

柯琴에 의하면, 傷寒이 中風에 비해 그 자체로 重證인 것이 아니라, 傷寒과 中風에 각각 輕重이 있는 것으로서, 輕重은 命名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現證에 있다. 이 中風傷寒各有輕重論은 三綱鼎立說의 중요한 결론인 “傷寒見風·中風見寒”을 論駁하기 위한 柯琴의 論證에

23) 六經에 따른 자세한 治法에 대해서는 「六經正義」가 제시하고 있는 六經治法 各論을 참조.

해당하는 理論이다.

(3) 六經現證期日論

柯琴은 太陽에서 厥陰에 이르는 一日에서 六日의 循次를 六經顯證의 期日로 해석하는 이론을 제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熱論」의 期日은 傳經의 期日이 아니라 現證의 期日이며, 이러한 現證期日 上의 차이는 六經의 分部에 位相의 高低가 있으므로 因해서 邪氣를 感受하는 期日에 있어서도 順次상의 遠近이 생겨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柯琴이 중시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날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六經 分部의 層次 上의 구별이며, 그에 따른 病證 發現의 차이와 治法의 구별이다. 柯琴은 이를 『素問·至眞要大論』의 “氣有高下, 病有遠近, 證有中外, 治有輕重, 適其至所爲故也”로 요약하고 있다.

(4) 六經受邪發病各路論

柯琴은 『內經·邪氣藏府病形』의 “中於面, 則下陽明. 中於項, 則下太陽. 中於頰, 則下少陽. 其中於膺背兩脇, 亦中其經”과 “中於陰者, 常從臂胛始”, “身之中於風也, 不必動藏, 故邪入於陰經, 則藏氣實, 邪氣入而不能容, 故還之於府”의 句를 통해서, 六經이 邪氣를 받음에 있어 각기 독자적인 경로가 있다는 이론을 제출하고 있다.

① 中陽溜經

-陽으로 들어온 邪氣는 經에 머무른다.

-太陽이 병듦에 있어 邪氣가 項部로 들어온 것과 背部로 들어온 것의 구별이 있어서, 사기가 項部로 들어오면 頭項強痛이 나타나고 背部로 들어오면 背強几几가 나타난다.

-陽明이 병듦에 있어서 邪氣가 面部로 들어온 것과 膺部로 들어온 것의 구별이 있어서, 面部로 들어오면 目疼鼻乾이 나타나며 膺部로

들어오면 胸中痞硬이 나타난다.

-少陽이 病됨에 있어서 邪氣가 頰部로 들어온 것과 脅部로 들어온 것의 구별이 있어서, 頰部로 들어오면 口苦咽乾이 나타나며 脇部로 들어오면 脇下痞硬이 나타난다.

②中陰溜府

-陰으로 들어온 邪氣는 經을 통해서 藏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藏氣가 實해서 邪氣가 藏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므로 府로 들어가게 된다. 三陰에서 모두 나타나는 下利는 寒邪가 府로 들어간 것이며, 下證은 熱邪가 府로 들어간 것이다.

(5) 太陽三方皆中風治方論

柯琴은 太陽의 三方 즉 桂枝湯과 麻黃湯 그리고 大靑龍湯 모두가 中風의 治方이라는 理論을 제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麻黃湯과 大靑龍湯은 中風 重證의, 桂枝湯과 葛根湯은 中風 輕證의 主劑이다. 한편 이 方劑들은 傷寒에도 通用할 수 있는 方劑이다.

(6) 太陽病多中風論

柯琴에 의하면, 太陽은 中風治方 爲主이며 少陰은 傷寒治方 爲主이다. 예컨대 太陽의 麻黃湯·桂枝湯·葛根湯·大靑龍湯, 少陰의 麻黃附子細辛湯·眞武湯·附子湯·吳茱萸湯·白通湯·四逆湯·通脈湯이 그 예이다. 한편, 中風治方들은 傷寒에도 通用할 수 있는데 비해 傷寒治方들은 中風에 通用할 수 없다. 寒邪는 溫法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風邪는 熱藥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風은 陽邪이므로 少陰中風이더라도 陽證 위주인데 비해 寒은 陰邪이므로 太陽傷寒이더라도 陰證 위주이다. 太陽病에는 傷寒에 비해 中風이 많은 것은 陽을 쫓는 法이기 때문이며, 少陰病에는 中風에 비해 傷寒이 많은 것은 陰을 쫓는 法이기

때문이다. 風은 百病之長이므로 다양한 病證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狀態로 볼 것 같으면 浮脈만이 主脈이며 惡風만이 定症이다.

2) 溫暑論; 鬱火論

「溫暑指歸」에 의하면, 『內經』의 溫熱病은 發熱이 출현하는 시기에 따라서 當是急發者, 過時發熱者, 隨時易名者의 세 유형이 있는데, 病의 輕重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天氣를 우발적으로 感受해서 생긴 것으로 病이 輕한 유형과, 藏精을 못해서 생긴 것으로 病이 重한 유형으로 구별된다. 病이 重한 유형은 비록 그 病이 겨울철의 傷寒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病의 뿌리는 “冬不藏精”에 기인한 病人의 鬱火에 있다. 이 鬱火論은 王叔和의 寒毒說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이론이다.

또 柯琴에 의하면 溫熱은 溫疫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溫疫은 藏精을 못한데다가 天氣를 우연히 감수하고 또 風土의 奇異한 氣를 感受하는, 세 病氣가 相合해서 變成된 것으로서, 溫熱은 그 害됨이 病人 한 사람에게 그치는데 비해서, 溫疫은 害가 다른 사람에게 미쳐 病禍가 이웃마을에까지 蔓延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張仲景 『傷寒雜病論』의 범주 내에서만 溫熱病²⁴⁾을 고찰하고 있는 「溫暑指歸」는 이 溫熱病의 유형 가운데, 王叔和의 寒毒說을 비판하고 張仲景의 條文을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서, 病이 重한 유형의 病機와 治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4) 柯琴은, 溫疫에 대해서는 吳又可의 『溫疫論』과 程郊倩의 『熱病注』를 전적으로 따르고 자신은 이에 대해 贅言을 달지 않다고 「溫暑指歸」를 통해 말하고 있다.

3) 痙濕論; 痙屬燥論

柯琴에 의하면, 痙은 風寒을 挾雜한 유형과 內因으로 인한 유형의 둘로 구별되는데, 전자가 『內經』 病機十九條의 “諸暴強直, 皆屬於風”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內經』의 病機十九條 가운데 유독 보이지 않는 燥에 속하며, 病機十九條의 “諸痙項強, 皆屬於濕”에 해당한다. 『內經』에서 濕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病證을 燥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이상한 듯 하지만, 「痙濕異同」에 의하면 六氣 가운데 燥와 濕은 相反하는 성질이 있으며, 張仲景 또한 痙과 濕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후자의 痙은 확실히 燥에 속하는 病證이다. 「痙濕異同」의 痙의 病機와 治法에 대한 이론은, 柯琴 當代 痙病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된 것이다. 즉, 柯琴의 판단에 의하면, 痙은 外邪로 筋을 傷한 病證보다는 血虛로 筋이 急해진 病證이 훨씬 많으므로, 風으로 판단하고 誤治해서 辛散한 藥味로 陽邪를 조장한다면 眞陰은 더욱 虛竭해질 것이며, 燥한 약물을 써서 風邪를 몰아내려 한다면 血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또 痙은 暴起하는 경우보다는 誤治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이런 誤治로 因한 痙證을 당해 虛한 것을 補하는 처방을 쓰지 않고서는 病人을 살려낼 수 없으므로 痙은 人蔘·黃芪·當歸·地黃으로 營衛를 調治해서 치료해야 한다.

9. 六經病論

本 「六經病論」은, 「太陽病解」에서 「厥陰病解」에 이르는 六經病解에 나오는 柯琴의 諸 이론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을 요약한 것이다.

-胸膈의 上部 心이 곧 太陽이며 傷寒에는 心病이 가장 많다.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 즉, 「六經正義」에 의하면 心胸은 어디까지나 陽明의 地面으로서, 太陽에게는 通街의 구실을 할 뿐이다. 한편, 心胸은 太陽과 陽明이 협계하고 있는 地面으로서, 太陽은 人身의 表를 主하므로 太陽의 地面은 表에 主안점이 있으며, 陽明은 陽部の 裏를 主하므로 心胸은 陽明의 本 地面이다. 따라서 「太陽病解」가 제출하고 있는 太陽이 胸膈의 上部 즉 心이라는 이론은 「六經正義」의 이론과 모순된다. 또 「風寒辨惑」에 의하면, 風寒의 外感은 風寒이 相因하여 營衛를 俱傷하는 방식으로 發病하며, 麻黃湯과 桂枝湯은 모두 中風을 主治하는 方劑로서, 太陽에 中風이 많은 이유는 太陽에 中風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太陽病을 유독 寒邪가 心을 傷한 病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太陽病解」의 이론은 「風寒辨惑」의 이론에 위배된다. 陸九芝는 『文十六卷·書柯韻伯傷寒論翼後』²⁵⁾를 통해서 『傷寒論翼』의 여러 이론들에 깊이 감탄하면서도, 유독 心爲太陽論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尤怡는 『醫學讀書記·柯氏傷寒論翼辨』²⁶⁾을 통해서 “心爲太陽”·“傷寒最多心病”에 대한 자세한 辯論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陽明病의 본질은 胃家實로서, 陽明病은 裏의 陽實證이다.

-陽明外證은 風寒表證과 內熱表證이 있는데, 陽明의 風寒表證에도 太陽과 마찬가지로

25) 王瓊 主編: 陸懋修醫學全書·書柯韻伯『傷寒論翼』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p.101.

26)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醫學讀書記·柯氏『傷寒論翼』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pp.345~346.

桂枝湯이나 麻黃湯을 쓴다. 表虛면 桂枝湯, 表實이면 麻黃湯인 것으로서 方劑의 쓰임이 經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證이 맞으면 그 方을 쓸 수 있다.

-아직 胃家實에 이르지 않은 陽明內熱表證은 梔子豉湯으로 吐法을 써서 다스려야 한다. 陽明에 있어서는 心胸이 表가 되므로 陽明病을 치료할 때에는 酸苦涌泄之劑를 써서 胃脘의 陽氣를 끌어올려 胸中の 表를 열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三陰이 邪氣를 받는 관건은 陽明 胃氣의 虛實에 달려 있다. 邪氣가 三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陽明은 三陰의 表이지만, 일단 三陰으로 轉屬된 邪氣에 있어서는 邪氣의 出路가 된다는 점에서 陽明은 三陰은 裏이기도 하다.

-脇은 樞機인 少陽의 樞로서 太陽 邪氣의 少陽으로의 轉屬과 少陽 邪氣의 陽明으로의 轉屬은 모두 脇을 경유한다.

-李東垣에 의하면 少陽病에는 汗吐下와 利小便을 禁한다고 하지만, 證에 따라서 汗下나 利小便의 治法을 쓰는 경우도 있다.

-太陰中風은 陰氣가 虛해서 陽氣가 陰分속으로 빠져든 것으로서, 外風이 있다고 해도 이 역시 內熱로 인한 것이므로 滋陰의 治法을 써서 陽氣를 부드럽게 해주어야 한다. 驅風의 治法을 쓰면 오히려 熱이 더 오르게 된다.

-脾와 胃는 서로 連接해 있기 때문에, 脾家가 實해지면 腐滅가 저절로 제거되 太陰의 開가 회복되지만 胃家가 實해지면 地道가 막혀 陽明의 閨病으로 轉屬된다. 따라서 傷寒이라면, 三陽의 傷寒 뿐만 아니라 太陰傷寒이라도 陽氣(陽明의 陽氣)가 主가 된다.

-太陰의 本病은 寒濕이며, 太陰의 本脈은

沈細脈이다. 또 標病의 경우, 太陰中風이라면 浮脈이며, 太陰傷寒이라면 浮緩脈이다.

-脈은 病을 따라서 變化하는 것이지 특정 經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陽經의 病이더라도 陰脈이 나타날 수 있으며, 陰經의 病이더라도 陽脈이 나타날 수 있다. 三陰病에서는 언제나 沈脈이 나타나고 陰經의 病에는 發汗法을 써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오류이다. 太陰中風에서 脈이 浮한 이유는, 脈이 藏의 陰을 좇는 것이 아니라, 風의 陽을 좇아서 나타나기 때문으로서, 이 때는 表劑인 桂枝湯을 써야 한다.

-病이 裏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汗法을 禁해야겠지만, 脈이 沈하다고 해서 무조건 病이 裏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汗法을 禁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陰脈 가운데 陽脈이 보인다면 沈脈이더라도 發汗法을 쓸 수 있으며, 陽脈 가운데 陰脈이 보인다면 浮脈이더라도 반드시 溫法을 써야 한다.

-少陰病에 있어서 煩은 生機를 의미하며 躁는 邪兆를 의미한다. 煩躁가 유독 少陰病에서 더욱 甚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少陰病이 眞陰이 虛한 病證이기 때문이다.

-三陽病 가운데 오직 少陽病에만은 承氣湯證이 없는데 비해서, 三陰病 가운데 오직 少陰病에만은 承氣湯證이 있다. 少陽은 三陽의 樞機이므로 조금이라도 陽氣가 손상을 입으면 邪氣가 곧바로 陰分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함부로 下法을 써서 元陽을 虛損시켜서는 안된다. 또 少陰은 三陰의 樞機이므로 陽邪가 조금이라도 盛해지면 곧바로 陰液을 손상시키게 된다. 때문에 서둘러 下法을 써서 眞陰을 보존해야 한다.

-少陽과 厥陰은 모두 相火를 主하는데, 相

火가 內로 들어가면 厥陰病이 되고, 表로 나오면 少陽病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少陽病의 여러 病症들은 厥陰病의 先兆症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少陽의 邪氣가 厥陰으로 들어가면 病이 危重해지는데 비해서, 厥陰의 邪氣가 少陽으로 나오면 病이 낮게 된다.

-厥陰提綱은 溫病이지 傷寒이 아니다.

-제358조, 즉 “手足厥寒, 脈細欲絕者, 當歸四逆湯主之”에서, “手足厥寒, 脈細欲絕”은 厥陰傷寒의 外證이며, 當歸四逆湯은 厥陰傷寒의 表藥이다.

-厥陰은 晦와 朔이 만나서 한데로 습하는 理를 갖고 있어서, 陰이 다하고 陽이 자라나는 곳이므로, 厥陰傷寒은 거꾸로 陽氣가 主가 된다. 따라서, 厥陰病의 診脈에 있어서는 주로 陽氣의 동향을 살펴야겠지만 用藥에 있어서는 주로 陰氣의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0. 平脈辨證論

柯琴에 의하면, 脈診은 辨證에 있어 두 가지 的의를 갖는다. 脈診은 治法을 세우는 일차적 단계로서 表裏寒熱의 病機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辨證과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이른바 張仲景이 말하는 “平脈辨證”이다. 脈診은 辨證의 일부로서 중요한 的의를 지니지만, 病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六經辨證에 의하여 病位가 定해진 다음에야 그 辨證결과 내에서 脈診이 기능하게 된다. 이는 주로 病情의 虛實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른바 從中索隱이다. 柯琴의 이러한 인식은 脈診의 的의가 表裏寒熱虛實의 證治大法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脈法의 運用에 있어서 柯琴은 脈

法의 體用과 五端을 설정하고 나아가 診脈의 四法을 설정하고 있다.

-脈診의 原理는 陽의 用인 浮·大·動·滑·數과 陰의 用인 沈·澁·弱·弦·遲의 十種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陰과 陽을 서로 맞세워 놓고 보면 陰脈과 陽脈이 저절로 둘로 갈리지만, 陰과 陽을 서로 짝지워서 보면 단지 五端으로 요약된다.

-看脈法에는 對看法·正看法·反看法·平看法·側看法·徹底看法의 五法이 있으며, 眞陰眞陽看法이 있다.

-浮沈遲數이 본질적으로 表裏와 藏府로 分屬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表裏와 藏府는 陰陽을 달리하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陽의 體 즉 浮脈은 表病을 主하고 陰의 體 즉 沈脈은 裏病을 主하며, 陽의 用 즉 數脈은 府病을 主하고 陰의 用 즉 遲脈은 藏病을 主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表裏藏府의 病所를 찾아야 한다.

表裏藏府四法은 病證의 表裏寒熱과 관계되며 脈法의 體用과 五端은 陰陽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柯琴은 이러한 脈法을 바탕으로 실제 臨證에 나아가 病證에 脈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陰陽十脈과 表裏藏府四診은 脈의 體와 用을 설명한 것인데 비해서, 診法의 體와 用으로 말할 것 같으면 病이 體가 되고 脈은 用이 된다. 따라서 病證을 기준으로 脈診의 결과를 습하여 辨證을 하게 되는 것이다.

11. 制方大法論

柯琴에 의하면 方劑를 구성하는 가장 큰 원칙은 因證立方 즉, 辨證결과에 따라 治法을 세우고 方劑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柯琴 制

方論의 第一義는 表裏寒熱大法에 따른 制方이다. 表裏 즉 病所の 深淺에 따라 汗吐和攻의 四劑의 구별이 있으며, 寒熱 즉 病性の 陰陽에 따라 寒溫 二劑의 구별이 있다. 太陽이 表를 主하고 太陰이 裏를 主하는 큰 淺深이 있다면, 각 經에는 位相에 따른 表裏의 次第가 있다. 더욱이 一經 內에서도 表裏의 淺深이 있다. 한편 淺深은 表裏의 層次를 의미할 뿐 아니라 病勢의 淺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病勢의 淺深에 따라서 方劑의 輕重을 調節하는 것은 柯琴 制方論의 第二義이다.

한편, 柯琴에 의하면, 張仲景의 制方法은 여섯의 중심 方劑를 기준으로 加減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여섯 방제는 六經 각각의 主治方이 될뿐더러, 다른 經에도 통용되는 포함이 있다. 또 張仲景의 方劑에는 表裏와 寒熱과 虛實의 구별이 있을 뿐으로서, 中風인가 傷寒인가 雜病人가하는 病名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風寒兩感에 두 方劑를 번갈아 쓰는 妙法이 있으며 表裏俱病에 두 方劑를 바꿔 쓰는 奇法이 있고, 때로는 原方을 그대로 써서 功效를 얻고 때로는 本方의 加減을 통해서 效驗을 보고 있다.

柯琴 制方論의 또다른 중요한 결론은 六經 모두에 表劑와 下劑를 써야할 病證이 있다는 사실이다. 柯琴에 의하면 三陰은 원칙적으로는 表症을 가질 수 없지만 表症이 挾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三陰에도 역시 表劑가 있으며, 攻法은 燥屎를 攻下한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實邪를 내모는 것은 모두 “攻”에 해당하므로 六經 모두에 攻法이 있을 수 있다.

또 柯琴에 의하면 張仲景의 方劑들은 十劑의 法을 갖추고 있다.

VI. 結 論

이상 柯琴 『傷寒論翼』의 諸 醫論을 고찰했다. 柯琴의 諸 醫論은 當代의 諸 傷寒理論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그의 연구는 방법론 자체로 후대의 傷寒學에 영감을 주고 있다. 또 六經은 張仲景 『傷寒雜病論』의 핵이므로, 六經에 대한 柯琴의 理論은 柯琴의 諸 醫論을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論考는 柯琴의 연구가 갖는 의의를 개선하고 柯琴 六經論의 의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柯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대의 傷寒學에 영감을 주고 있다.

1. 柯琴의 연구는, 張仲景 『傷寒雜病論』이 『內經』의 醫論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實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의학 고유의 陰陽論의 사유를 고양했다.

2. 柯琴의 연구는, 傷寒雜病合參論과 六經地面論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六經辨證體系가 諸 질병의 證治에 응용될 수 있는 지평을 제시했다.

3. 柯琴의 연구는, 六經이 辨證論治體系로 작동하는 準繩이 表裏寒熱虛實의 證治大法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例證하는 과정을 통해서 辨證의 사유를 고양했다.

柯琴 六經論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柯琴 六經論은 張仲景 『傷寒雜病論』이 外感和 雜病을 포괄하는 諸 질병의 證治를 擔持하고 있다는 것과, 六經이 모든 질병의 辨證論治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인 辨證論治體系라는 것이라는 두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柯琴의 六經論은 六經地面論과 六經治法論 그리고 平脈辨證論과 制方大法論을 유기적으로 아

우르는 포괄적인 이론이다.

2.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의 六經은 온몸을 內外上下表裏의 淺深에 따라 여섯의 공간으로 분절한 것이다. 人身은 陰陽의 待對에 의해 內外와 上下로 二分位되며, 三陰 三陽의 分化에 따라 일련의 表裏層次를 지나는 여섯의 區域으로 分位된다. 地面 高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待對하고 互根하는 陰陽의 屬性과, 三陰三陽의 離合에 의한 開闔樞 기능의 차이와, 三陰三陽의 表裏관계와, 三陰三陽의 主氣이다.

3. 治法은 表裏寒熱虛實의 證治大法을 통한 辨證에 의해 定해진다. 三陽病은 邪氣의 深淺에 따라서 病證이 發現하는 양상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藥의 氣味가 作用하는 表裏深淺과 藥性의 寒熱溫涼이 달라진다. 三陰病은 裏證 위주로 他經으로부터 轉屬된 경우가 많으므로 邪氣의 深淺보다는 邪氣의 內外轉屬經路에 따른 邪正의 盛衰, 그리고 病證의 寒熱虛實에 따라 治法이 달라진다.

4. 平脈은 表裏寒熱의 病機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辨證과 상보적인 관계를 갖으며, 虛實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辨證을 先導하는 의의를 갖는다.

5. 制方은 辨證에 의해 결정된다. 辨證 결과 동일하면 地面과 관계없이 그 方劑를 쓸 수 있다. 方劑에는 表裏의 層次에 따른 차이와 寒熱虛實에 따른 구별, 그리고 病의 輕重에 따른 方劑의 輕重이 있을 뿐이다.

辨證論治는 규격화할 수 있는 고정된 틀이라기 보다는 적합한 施治라는 목적 하에 辨證을 수행해내는 능력이자 정신이다. 柯琴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辨證精神이란, 『內經』을 통해서 醫學의 원리인 陰陽을 窮究하는 한

편 病證에 臨해서 病機와 病情을 窮理하고, 나아가 治法을 세우고 用藥하는 데 있어 藥性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있음을 조건으로 획득되는 배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柯琴 醫論의 핵심인 六經論 역시 人身을 여섯으로 분절한 地形圖 정도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보다는 諸病證의 특성을 파악하고 諸 治法과 方藥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體系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VII. 참고 문헌

○ 傷寒書類

1. 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년.
2. 柯琴 編註 曹炳章 圈點 裘沛然 總審定: 傷寒來蘇集(中國醫學大成 제7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년.
3. 張機: 仲景全書, 大北, 集文書園, 中華民國 72년.
4. 柯琴 原著 윤창열·신영일·김선호 編譯: 懸吐完譯柯氏傷寒論注, 대전, 주민출판사, 1999년.
5. 李培生 編著: 柯氏傷寒論注疏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년.

○ 內經類

6. 戶川芳郎 監修 石田秀實 編: 素問次注集疏(黃帝內經研究叢書), 大阪, オリエンツ출판사, 1987년.
7. 홍원식 監修 박찬국 著: 현토국역황제내경소문주석,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8년.

8. 김규열 편역: 黃帝內經素問校注匯粹, 서울, 일지사, 1998년.
 9. 丹派元簡 編: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년.
 10. 丹派元簡 編: 靈樞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년.
 11. 鄭慶濤 發行, 馬元臺張隱庵合注, 臺北, 臺北國風出版社, 民國70년
 12. 胡天雄 著: 素問補識, 북경,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년.
- 사전류
1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년.
 14. 이가원 등 감수: 교학대한한사전, 서울, 교학사, 1998년.
 15. 이가원 등 감수: 동아대한한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2년.
 16. 張其昀 主編: 中文大辭典(第一次修訂板普及版), 台北, 中華學術院, 中華民國74년.
- 의사문헌
17.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재단법인 동양의학연구원, 1987년.
 18. 甄志亞 主編: 중국의학사,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91년.
 19.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년.
 20. 陳大舜 등 編: 中國歷代醫論選講, 北京, 중국의약과기출판사, 1997.
 21. 陳大舜 등 엮음 맹웅재 등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년.
 22. 甄志亞 主編: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1992년.
 23. 裘沛然 主編 嚴世藝 副主編: 中醫歷代名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년.
- 논문 및 잡지류
24. 유기덕 석사학위논문: 柯琴의 傷寒學說로 본 仲景의 六經體系,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년.
 25. 김세현 석사학위논문: 柯琴의 三陽病解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6년.
 26. 김수열: 喻昌의 生涯와 醫學思想,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4, 1990년.
 27. 王瓊 主編: 陸懋修醫學全書·書柯韻伯『傷寒論翼』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p.101.
 28.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醫學讀書記·柯氏『傷寒論翼』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pp.345~346.
 29. 정창현 석사학위논문: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년.
 30. 김수열 박사학위논문: 傷寒論 六經과 內經 三陰三陽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5년.
 31. 박세기 석사학위논문: 仲景 傷寒論의 六經病에 對한 內外論의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5년.
 32. 은종원 박사학위논문: 傷寒論이 後世醫學에 미친 影響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5년.
 33. 薛盟: 談柯韻伯運用『內經』疏証『傷

- 寒論」的認識， 浙江中醫學院學報，
1982, (2):45.
34. 蔡定芳：柯韻伯學術思想管窺，浙江中醫
學院學報，1983, (1):40.
35. 張迪蛟：試論柯韻伯的醫學成就，浙江中
醫學院學報，1984, (6):50.

